

미국 콘텐츠 산업동향

CONTENTS INDUSTRY TREND OF USA

한국콘텐츠진흥원
미국사무소



주간 심층이슈

『연휴를 준비하는 미국 극장가 개봉 전략과 트렌드』

◎ 작성취지

- 2011년을 한 달 반 남짓 남겨둔 이 시점에서, 2011년 11월 셋째 주부터 2012년 1월 마지막 주까지 세달 동안 예정된 극장개봉 예정 스케줄을 통해 관객몰이를 할 개봉작을 주간별로 살펴보고, 이를 토대로, 배급 전략을 역으로 추정해봄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한국콘텐츠 배급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
◎ 작성순서

- 들어가기
- 연휴를 준비하는 미국 극장가 개봉 전략 및 개봉영화 트렌드 분석
- 정리 및 시사점

1. 들어가기

■ 연말연시를 대비하는 미국 극장가의 개봉 시기

- 미국 극장가의 이른바 ‘골든위크(Golden Week: 일본, 중국에서 긴 휴일을 일컫는 말)’는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5월이지만, 추수감사절, 크리스마스, 연말연시, 겨울방학이 줄지어 기다리는 겨울 역시 흥행이 보장되는 시기임
- 그런 이유로, 흥행이 예상되는 대목에 블록버스터의 개봉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, 개봉일은 영화의 규모와 스튜디오의 기대 등을 예상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됨
- <캐리비안의 해적> 시리즈는 여름방학, <해리 포터> 시리즈는 겨울

- 방학에 주로 개봉하는 이유가 영화내용과 영화의 주요 관객층이 분석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
- 극장 비즈니스는 경제 침체기에도 호황을 누리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, 오히려 경제가 침체되어야 더 잘되는 사업이라는 말도 있음
 - 극장은 가족단위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에게 경제적인 오락을 제공하는 장소로,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국인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음
 - 블록버스터의 기준은, 와이드릴리즈(전국개봉)를 하는 영화중에서 관객의 기대를 높일 만한 감독, 배우의 이름이 있는 경우를 선택함
 - 개봉일은 리미티드릴리즈(선택된 몇몇 도시에서 시험 삼아 개봉하는 제한개봉)가 아닌 와이드릴리즈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함

2. 연말연시 동안 미국 극장가 개봉 전략 및 흥행요인 분석

■ 2011년 11월 극장개봉 마케팅 전략 및 개봉영화 분석

○ 11월 18일 개봉영화의 마케팅 전략

- 블록버스터 <The Twilight Saga: Breaking Dawn Part1>, 애니메이션 <Happy Feet Two>가 추수감사절인 11월24일 주말보다 한 주 앞선 11월18일에 개봉
- 두 편의 영화가 겨냥하는 관객층이 비교적 다른 편이라, 좌석점유율 경쟁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이 두 영화는 모두 프랜차이즈 영화들로, 전편(들)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, 그만큼 충성도 높은 예상 관객이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함
- 따라서 개봉 주에 극장을 찾지 않더라도, 2주차, 3주차에 극장에서 이 두 영화를 선택할 관객이 많다는 의미임
- 11월24일부터 추수감사절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전인 11월23일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4편인데, 그 4편 모두 앞선 두 편보다 1주 늦게 개봉하지만, 함께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
- 따라서 1 이 두 편이 먼저 개봉하는 이유는 추수감사절 대목을 앞두

고, 관객을 선점하고, 입소문을 내기 위한 전략임

○ 11월 18일 개봉영화의 즐거리 및 흥행요인

- <The Twilight Saga: Breaking Dawn Part1>

- 어드벤처, 드라마, 판타지, 로맨스 장르이며, <The Twilight Saga: Breaking Dawn Part2>, <드림걸스>, <킨제이보고서> 등을 제작한 빌 콘돈 감독의 영화
- <트와일라잇> <뉴문> <이클립스>에 이을 벨라와 뱀파이어 에드워드의 로맨스로, 벨라가 에드워드와 결혼한 뒤 임신하자 이를 두고 늑대인간 킬렛족과 뱀파이어 볼투리 가문이 격돌할 준비를 한다는 내용
- <트와일라잇>부터 시작해서 2편, 3편으로 스테프니 메이어의 원작 소설의 인기가 영화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임
- Part1이 전편들에 이어 흥행할 경우, 관객의 기대가 Part2로 이어지는 장점이있으므로 <해리 포터>처럼 마지막 편이 Part1과 Part2로 나뉘어져 개봉할 예정임
- 이미 이 영화를 보려고 하는 관객들이 많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는 확실한 타깃 관객층을 향한 집중 마케팅이 가능함
- 이번 <Breaking Dawn Part1> 개봉에 앞서, 팬과 배우를 만나게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함
- 벨라와 에드워드의 결혼식, 벨라의 웨딩드레스 등 영화 촬영 당시 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또한 하나의 흥행요소로 보임

- <Happy Feet Two>

- 애니메이션, 뮤지컬, 패밀리 장르이며 <해피 피트>, <아기돼지 베이브>, <로렌조 오일> 등을 제작한 조지 밀러 감독의 영화
- 전편에 이어 탭댄스 추는 펭귄 멍블이 아버지가 되어, 탭댄스를 추지 못하는 아들과의 소통에 문제를 겪는 한편 빙하가 움직임에 따라 펭귄들은 고립되는 위험에 처한다는 내용
- 전작 <해피 피트>의 흥행과 음악적 요소, 사랑스러운 캐릭터들, 애니메이션 자체가 가진 교훈적인 메시지에 더해, 어린이 관객을 포

- 함한 가족관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흥행예상요소로 보임
- 3D로 상영하므로 회당 영화표 판매수익이 일반 상영작 보다 높음

○ 11월 25일 개봉영화의 마케팅 전략

- 본격적인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해 가족용 영화 3편이 추가로 개봉함
- 장르도 애니메이션, 판타지, 코미디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에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애니메이션도 있어, 추수감사절의 흥행분위기를 그대로 크리스마스까지 이어가려는 목적으로 보임
- 크리스마스에 경쟁이 심해 추수감사절에 미리 개봉하게 하기도 함
- 1주 전에 개봉한 두 편까지 합세해 모두 여섯 편의 신작이 경합을 벌이는 한 주가 될 듯함
- <플라이>, <폭력의 역사>, <이스턴 프로미스>를 감독한 데이비드 그로넨버의 <A Dangerous Method>를 와이드릴리즈할 예정임
- 가족관객 취향의 영화가 많기 때문에, 성인취향의 영화를 보려는 관객을 위한 카운터 프로그래밍(Counter-programming: 같은 날 개봉하는 영화에 대응하는 개봉전략)임
- 와이드릴리즈이기는 하지만, 다른 6편의 영화와 비교하면 스크린점 유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

○ 11월 18일 개봉영화의 줄거리 및 흥행요인

- <Hugo> (국내 개봉제목은 <위고 카브레의 발명품>)
 - 어드벤처, 패밀리, 판타지, 미스터리 장르이며 <디파티드>, <좋은 친구들>, <셔터 아일랜드> 등을 감독한 마틴 스코시즈의 영화로 <위고 카브레>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출간된 동명소설이 원작이기도 함
 - 1930년대 파리, 기차역 승강장 사이의 벽에서 숨어 사는 고아 소년 이 죽은 아버지와 관련한 미스터리해 휘말리면서 모험을 하는 내용
 - 평소 성인관객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오던 마틴 스코시즈 감독이 제작한 가족영화라는 점이 단점으로 비춰지기도 함

- 또한 칩멍크(다람쥐)도, 스머프도, 복싱로봇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행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미지수임
- 반면 실사 3D로 판타지 어드벤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야기에 충실한 영화가 완성되었으며 1930년대의 파리를 디지털로 재현한 풍경을 볼 수 있음
- <The Muffets>
 - 패밀리, 판타지, 코미디 장르이며 <Da Ali G Show> 등을 감독한 제임스 보빈의 영화
 - 머펫(손으로 조종하는 인형)의 팬인 세 친구들이, 경영난과 석유재벌의 음모로 문을 닫게 된 머펫 전용 극장을 구하기 위해 돈을 모금하는 이야기임
 - 어린이 TV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하는 머펫쇼를 보고 자란 사람들을 캐릭터를 사랑하는 확보된 관객이 있으므로 이를 흥행예상요소라고 기대하고 있음
- <Authur Christmas>
 - 애니메이션(클레이), 코미디, 드라마, 패밀리 장르이며 감독은 사라 스미스임
 - 산타는 북극지방에서 가족을 이루고 엘프들의 도움으로 크리스마스 새벽에 전 세계에 선물을 나르는데 이번 크리스마스에 한 소년의 소원이 누락되고, 산타가족은 그 사고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는 내용
 - <월레스와 그로밋><플러쉬>를 만든 영국의 아드만 스튜디오에서 만든다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짐
 -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과는 디자인이나 유머의 코드가 다른 방향으로 창의적으로 제작됨
 - 미국에서는 산타가 영국 사람으로 설정된 애니메이션의 설정이 위험요소라고 생각하기도 함

■ 2011년 12월 극장개봉 마케팅 전략 및 개봉영화 분석

○ 12월 9일 개봉영화의 마케팅 전략

- 추수감사절부터 쌓인 굶직한 개봉작이 많아서인지, 12월2일로 예정

된 블록버스터는 없지만 이렇게 빈 스케줄이 있을 경우, 완성되어 개봉을 기다리던 영화가 끼어들 요소가 있음

- 12월9일 개봉작은 <Tinker Tailor Soldier Spy>, <New Year's Eve>, <Young Adult> 세 편이 개봉예정임
- 이때에 블록버스터라고 부르기엔 평범하지만,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화가 많은 관객과 만나는 '슬리퍼히트' (작지만 강력한 흥행 열풍을 일으켰던 영화) 작이 만들어지기도 함
- 대표적인 슬리퍼히트로는 <Knocked Up>과 <행오버>가 있음
- 또 이 시기에는 연초부터 시작되는 각종 시상식 후보작으로 점쳐지는 영화들이 시상식 후보가 되기 위한 극장 개봉일수를 채우기 위해, 부지런히 극장상영을 시작함
- 그래서 이 시기에 극장가는 블록버스터 아니면 아트하우스 영화(작은 회사가 만들거나 해외 영화)가 주를 이루게 됨

○ 12월 9일 개봉영화의 즐거리 및 흥행요인

- <Tinker Tailor Soldier Spy>
 - 스릴러 장르이며 <렛 미 인>를 감독한 토마스 알프레드슨의 영화
 - 냉전시대, 베테랑 첩보원이었던 조지 스마일리는 MI6 내부의 소비에트 첩자를 색출하지 못하면 퇴직하라는 협박에 시달린다는 내용
 - 훌륭한 캐스팅, <렛 미 인>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스웨덴 출신 신예감독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이라는 점도 흥행에 도움을 줄 것 같음
 - IMDb는 이 영화를 두고 오스카 작품상 혹은 감독상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점쳐짐
- <New Year's Eve>
 - 로맨스, 코미디 장르이며 <발렌타인스 데이>, <프린세스다이어리>, <프린세스다이어리2> 등을 감독한 게리 마샬의 영화임
 - 뉴욕을 무대로, 커플들과 싱글들이 연말에 서로 얽히고설키는 내용
 - <러브 액츄얼리> 이후로 어느 정도는 공식화되다시피 한 연말용 로맨틱코미디임
 - 게리 마샬은 <발렌타인스 데이>에서도 영화 한편씩은 찍을 법한

훌륭한 배우들로 이야기를 꾸몄는데, 이번에도 비슷한 구성으로 이야기를 준비했으며 뻔한 영화지만, 연말용 영화로서는 제격임

- <Young Adult>

- 드라마, 코미디 장르이며 <주노>, <업 인 디 에어>, <땡큐 포 스모킹> 등을 감독한 제이슨 라이트먼의 영화임
- 이혼 뒤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인 고향으로 돌아온 여류소설가가, 지금은 유부남에 아버지가 된 예전 남자친구와 로맨스를 되살린다는 이야기임
- <주노>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디아블로 코디와 제이슨 라이트먼 콤비가 다시 뭉쳐 제작한 영화임

○ 12월 16일 개봉영화의 마케팅 전략

-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할리우드는 블록버스터의 전략적 배급을 시작함
- 본격적인 크리스마스를 10일 앞둔 이 시점에 배급사들은 안전하게 예년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 두 편의 속편 <Sherlock Holmes: A Game of Shadows>와 <Alvin and the Chipmunks: Chip-wrecked>가 예정됨
- 특히 <Alvin and the Chipmunks> 시리즈는 유명가수의 노래들을 다 람쥬가 따라 부르는데,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아 연말용 영화로 적합
- 전 편의 전 세계 박스오피스 성적이 좋은 편이어서 속편 역시 흥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음

○ 12월 16일 개봉영화의 줄거리 및 흥행요인

- <Sherlock Holmes: A Game of Shadows>

- 액션, 어드벤처, 미스터리, 범죄, 스릴러 장르이며 <셜록 홈즈>, <스내치>, <록, 스타크 앤드 투 스모킹 배럴즈> 등을 감독한 가이 리치의 영화임
- 셜록 홈즈와 파트너 왓슨 박사가 속적 모리아티 교수와 벌이는 추격전을 벌이는 내용
- 가이 리치 감독은 이미 작년에 <셜록 홈즈>로 아서 코넨 도일이 창조한 캐릭터와 이야기에 새로운 팬들을 불러모았음
- 속편은 홈즈 형제와 왓슨이 협심하여 모리아티 교수의 뒤를 쫓아

유럽을 횡단하는 이야기를 다루며 흥행을 예상함

- <Alvin and the Chipmunks: Chip-wrecked>

- 코미디, 뮤지컬, 가족, 애니메이션이며 <슈렉 포에버>, <스카이 하이>, <서바이빙 크리스마스> 등을 감독한 마이크 미첼의 영화
- 다람쥐 앨빈이 후견인 데이브와 함께 떠난 크루즈여행에서 일어나는 모험담으로 크루즈가 시칠리아 섬을 지날 때 사고를 당해 난파되고 다람쥐들은 열대 섬에 고립된다는 내용임
- 칩멍크는 미국애니메이션문화에서 유명한 캐릭터 중에 하나로 TV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가 2007년 극장판으로 제작된 바 있음
- 2007년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벌써 세 번째 크리스마스 개봉작으로 전 작 두 편은 해외에서 9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이를 이어 또 하나의 흥행을 예상함

○ 12월 21일-25일 개봉영화의 마케팅 전략

- 크리스마스 주간이기도 하고, 가장 쟁쟁한 영화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주간임
- 스웨덴 소설가 스티그 라르손의 드라마틱한 죽음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<밀레니엄>시리즈의 할리우드판이 개봉함
- 이에 맞서는 개봉작은 <라따뚜이>, <인크레더블>, <아이언 자이언트>를 만든 브래드 버드 감독의 첫 실사영화 데뷔작인 <Mission Impossible: Ghost Protocol>
- 스티븐 스피버그가 감독하는 영화 두편 <The Adventure of Tintin: The secret of Unicorn>, <War Horse>를 개봉
- <The Girl with the Dragon Tattoo>와 <Mission Impossible: Ghost Protocol>은 성인과 남성 관객들을 타깃관객층으로 할 것이고 스피버그의 두 편은 가족과 어린이관객을 타깃으로 함

○ 12월 21일-25일 개봉영화의 줄거리 및 흥행요인

- <The Girl with the Dragon Tattoo>
 - 드라마, 스릴러 장르이며 <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>,

〈소셜 네트워크〉를 감독한 데이비드 핀처의 영화임

- 소셜 〈밀레니엄〉시리즈 중 첫 번째 시리즈 〈여자를 증오한 남자들〉을 제작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수감을 선고받은 기자가 천재 해커와 함께 40년 전 사라진 여자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임
 - IMDb는 이 영화만큼 많은 사람이 리메이크를 기다린 적도 없다고 함
 - 〈밀레니엄〉 시리즈 1부는 스웨덴에서 이미 영화로 만들어진바 있고, 소설원작의 인기에 따라 미국에서는 Netflix를 이용해 관람이 가능함
 - 하지만 〈소셜 네트워크〉로 작품성과 상업성 모두를 완성시키는 감독으로 인정받은 데이비드 핀처가 메가폰을 잡는 사실이 기대를 모으고 있음
 - 또한 이미 널리 읽힌 소설원작이 있음에도 감독판 결말을 만든다고 알려져, 책을 읽은 사람들도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
- 〈Mission Impossible: Ghost Protocol〉
- 액션, 어드벤처, 스릴러 장르이며 〈라따뚜이〉, 〈인크레더블〉, 〈아이언 자이언트〉 등을 감독한 브래드 버드의 영화임
 - 러시아 크렘린 궁 폭발테러사건에 첩보조직 IMF가 연루되어 정부는 국제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‘고스트프로토콜’을 발동해, 조직의 정체와 과거를 지워버린다는 내용
 - 1990년대 시작된 〈미션 임파서블〉 프랜차이즈의 다섯번째 영화로 톰 크루즈보다는 첫 실사영화를 만드는 감독 브래드 버드가 이 영화의 흥행요소로 여겨지고 있음
 - 게다가 이 영화는 IMAX로 1주 먼저 개봉한 뒤 일반 상영관으로 확대개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
 - 이는 일반 입장료보다 2배 높은 관람료를 받아 개봉주에 좌석점유율도 높이고, 티켓단가도 높이는 전략임
- 〈The Adventure of Tintin: The secret of Unicorn〉
- 애니메이션, 액션, 어드벤처, 가족, 미스터리 장르이며 스티븐 스피

버그가 감독하는 3D 애니메이션 영화임

- 소년 기자 땡땡(국내에는 <틴틴: 유니콘 호의 비밀>로 개봉함)과 애완견 밀루가 펼치는 모험으로 땡땡이 친구인 아독 선장에게 선물한 모형 배에 숨겨진 보물지도를 따라 보물을 찾아나서는 이야기임
 - 원작은 벨기에 작가 에르제가 1929년 탄생시킨 만화로, 1980년대 한국에서도 연재된 이야기임
 - 테크놀러지보다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스티븐 스피버그가 3D / 3D 애니메이션 / 모션 캡처 등의 신기술을 이용하는 영화를 연출한다는 사실이 매력적인 흥행 요소
 - 2011년 스피버그는 유난히 제작으로 크레딧에 이름을 많이 올렸는데, <The Adventure of Tintin: The secret of Unicorn>과 <War Horse>로 연출작 2편을 같은 주에 개봉함
- <War Horse>
- 드라마, 전쟁 장르이며 또 다른 스티븐 스피버그의 3D 애니메이션 영화임
 - 알버트와 애마 조이의 우정을 그리는 영화로 시장에서 팔려 1차 대전 기마부대로 전쟁에 나서게 된 애마 조이를 구하기 위해 알버트가 자원입대하여 프랑스로 떠나는 내용임
 - 사실 스티븐 스피버그라는 이름 이외에, 광활한 전쟁장면을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 관객이 아니라면, 다른 개봉작들의 매력이 훨씬 큼
 -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3D 애니메이션에 엄청난 속도의 액션 어드벤처들이 많으니, 잔잔한 드라마를 원하는 관객을 위한 Counter-Programming로 볼 만한 영화임

■ 2012년 1월 극장개봉 마케팅 전략 및 개봉영화 분석

○ 1월 6일-13일 개봉영화의 마케팅 전략

- 추수감사절에서부터 크리스마스로 이어진 블록버스터의 여진이 남았을 지 개봉작을 살펴보면 블록버스터보다는 장르영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임
- 특히 1월6일, 1월13일 2주간의 개봉일에는 공포, 스릴러 등의 장르가 집중되어

- 이 때 개봉하는 공포영화는 <The Devil Inside>와 <Contraband>가 있음
- 수상식 시즌에 맞춰 개봉하는 <The Iron Lady>는 <맘마미아!>를 만든 뮤지컬감독 출신의 영화 감독 필리다 로이드가 연출하는 영화로 블록버스터는 아님
 - <The Iron Lady>는 12월31일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제한 개봉한 영화를 와이드릴리즈할 예정임

○ 1월 6일-13일 개봉영화의 줄거리 및 흥행요인

- <The Iron Lady>
 - 드라마, 바이오그래피 장르이며 <맘마미아!>를 감독한 필리다 로이드의 영화임
 - ‘철의 여인’이라 불린 영국 전 수상 마거릿 대처의 삶을, 권력을 얻기 위해 포기했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진 영화임
 - 새로 개봉하는 블록버스터가 없는 공백기이고, 오락영화가 많았던 시기에 신선하게 어필할 수 있음
 - 또한 아카데미 시상식을 2월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상식용 영화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임

○ 2012년 1월 20일-27일 개봉영화의 마케팅 전략

- 1월말에 오스카 시상식 후보자 목록이 발표되고 시상식에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에 매년 블록버스터가 시들해지는 시기임
-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시상식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못하지만, 대중적인 동시에 또 장르의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액션, 스릴러 등이 집중됨
- 예년의 예를 들자면 <트랜스포터>, <테이큰>, <언노운> 등이 이 계절에 개봉한 대표적인 액션장르물임
- 이런 장르의 강세에 더해 드라마 혹은 멜로 장르의 영화가 한편 정도 함께 개봉해서 장르팬이 아닌 관객들에게 어필하기도 함
- 이 주간에는 <책 읽어주는 남자>, <빌리 엘리어트>의 감독 스티븐 달드리의 신작 <Extremely Loud and Incredibly Close>과, 스티븐 소더버그의 <Haywire>가 개봉함

○ 2012년 1월 20일-27일 개봉영화의 줄거리 및 흥행요인

- <Underworld: Awakening>

- 액션, 판타지, 호러 장르이며 만스 말린드와 비요른 스타인이 공동 연출함
- 뱀파이어와 라이칸(뱀파이어와 늑대인간 하이브리드)의 전쟁에 인간이 합세해서 두 종을 찾아내려는 인간들 때문에 뱀파이어와 라이칸은 잠시 휴전을 선언하고, 공동의 적과의 전투를 벌이는 내용임
- 시리즈의 전 두편의 감독이었던 렌 와이즈먼이 시리즈를 떠났기 때문에, 이 영화는 흥행요소보다는 위험요소가 커 보임
- 오락을 위해 영화관을 찾는 관객 중에 전 편 두 편을 모두 본 관객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음
- 영국에서는 2011년 11월에 개봉하기 때문에, 사전 공개되어 토론토나 P2P를 통해서 영화의 잠재적 관객을 놓칠 위험도 있음

- <Haywire>

- 액션, 스릴러 장르이며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임
- 미국 정부에 고용된 비밀요원으로서 더블린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맬러리가 동료에게 배신당한 뒤 펼치는 복수극임
- 스티븐 소더버그는 영화감독으로서 은퇴를 밝힌 뒤, 더욱 왕성한 연출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영화는 2011년 <컨테이션> 뒤 짧은 간격을 두고 개봉하는 것임

- <The Grey>

- 액션, 드라마 장르이며 조 카나한 감독의 영화임
- 알래스카의 석유 시추팀의 생존을 그려낸 영화로 비행기가 사고로 추락한 뒤 늑대 무리가 그들을 침입자로 여기고 사냥을 시작하는 내용을 다룸
- <스모킹 에이스> 시리즈의 조 카나한 감독의 이름과, <테이큰>, <언노운>으로 이어진 리암 니슨의 얼굴에서, 액션 장르를 기대하는 관객들의 기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

- <Man on a Ledger>

- 스릴러 장르이며 아스거 레스 감독의 영화임

- 전직 사기꾼이 맨해튼 호텔의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자, 경찰과 경찰 내 심리학자는 그를 회유하기 위해 출동하는데 경찰이 이 상황에서 집중한 사이 최대 규모의 다이몬드 강탈 사기극을 펼치는 내용임
- 잘 짜인 하이스트 드라마에 샘 워딩톤, 엘리자베스 벅크스, 제이미 벨 등 연기와 작품 고르는 안목이 있는 배우들의 이름도 신뢰를 줌
 - <Extremely Loud and Incredibly Close>
- 드라마 장르이며 <빌리 엘리어트>, <책 읽어주는 남자> 등을 감독한 스티븐 달드리의 영화임
- 9/11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 오스카가 다른 전쟁과 9/11를 통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교류하고, 아픔을 극복하는 이야기임
- 국내에도 출간된 조너선 새프런의 소설 <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이 가까운>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임
- 소설 원작을 영화로 옮겨내는 스티븐 달드리의 솜씨는 이미 전작들인 <책 읽어주는 남자>, <디 아워스> 등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. 다른 장르의 영화들이 많은 가운데, 유일한 드라마라는 점도 객석 확보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듯함
- 미국인이 좋아하는 두 배우, 톰 행크스와 샌드라 블록이 부부로 출연하며, 리얼리티 TV쇼로 유명해진 10대 배우 토마스 혼의 연기 데뷔작임

3. 정리 및 시사점

■ 개봉작 편성

- 2011년 연말과 2012년 연초에 개봉하는 영화들의 편성을 살펴본 결과, 예년과 유사한 지형으로 편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
-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기대작들이 집중되었고, 기대작 수가 많아서인지, 간혹 블록버스터가 개봉하지 않는 공백기가 끼어있기도 했음

■ 3D와 IMAX

- 3D와 IMAX상영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SF 판타지, 액션 등 특정 장르에서는 빠지지 않는 상영 옵션이 되었음
- 이 상영옵션은 “극장 경험”을 최대화한다는 점에서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는 흥행요소로도 작용함
- 또한 일반상영보다 입장료가 1.5배 내지는 2배까지도 비싸다는 점에서 극장이나 배급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높은 전략이기도 함
- <Mission Impossible: Ghost Protocol>는 개봉 첫 주는 IMAX 상영관에서만 독점 상영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는 좌석수가 많은 아이맥스 상영관을 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여짐
- 3D 렌더링 기술에 대한 고객들의 불평과 반감이 있기 때문에 3D 상영작은 2D로도 상영하는 방향을 주로 선택함

■ 감독 이름과 배우 이미지, 시리즈, 소설 원작, 전설의 아이콘적 캐릭터들의 부활

-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개봉하는 영화중에는 스타 감독, 거장을 기용해 만든 영화가 두드러짐
- 거장과 주목할 만한 이름들을 열거하면 마틴 스코시즈, 스티븐 스피버그, 데이비드 핀처, 스티븐 소더버그, 스티븐 달드리, 브래드 버드, 빌 콘돈, 조지 밀러, 토마스 알프레드슨 등이 있음
- <테이큰>, <언노운> 등으로 인해 흥행보증배우로 각인되고 있는 리암 니슨과 <콜 오브 듀티> 게임 시리즈에서 목소리연기를 한 뒤 인기를 얻은 게리 올드먼이 출연하는 액션스릴러가 크리스마스가 지난 소강기에 극장을 채울 예정임
- 가족관객 틈에서 영화 관람을 잠시 쉬던 장르팬과 성인관객이 극장에 모이는 시기와 잘 맞음
- 소설원작은 여전히 인기이며 할리우드가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현실에 대한 반증을 보여줌
- 이미 검증된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흥행이 보증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스튜디오가 선택한 안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함

- <The Muffets>, <Alvin and the Chipmunks> 등 기존에 존재하던 아이콘적 캐릭터를 스크린에서 되살리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음
- <스머프>가 3D로 만들어졌을 때 많은 성인관객들이 크게 반발했음에도 속편이 만들어질 정도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, 전설의 아이콘 캐릭터들은 계속해서 부활할 것으로 보임